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10일부터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 ‘친구아~노을~자’를 진행한다. 음악회에서 선보이는 동화극 ‘흥부와 놀부’의 한 장면.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슈팅스타! 캐치 캐치 티니핑~”,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인기 애니메이션 주제곡부터 모두에게 친숙한 동요, 호두까기 인형 등 클래식까지. 부쩍 따스해진 봄날, 어린이들을 들썩이게 할 음악회가 잇따라 열린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특별한 음악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5월 2일부터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키즈 콘서트 ‘모래 위의 클래식’을 선보인다. 지난해 열린 키즈콘서트의 모습. <광주시립교향악단 제공>

따뜻한 봄날, 어린이들에 선사하는 ‘음악 향연’

◇광주시립합창단=광주시립합창단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기획연주회 ‘친구아~노을~자’를 선보인다. 함께 놀자는 제목 그대로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함께 따라부르고 춤을 추며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애니메이션 주제곡 메들리와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음악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어린이들과 가족 관객들을 만난다. ‘안녕, 만화 속 친구들!’로 문을 여는 1부 공연은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주제곡들로 채워진다.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 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던 짝꿍 티니핑!’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사랑의 하쭈핑’의 OST ‘처음 본 순간’을 시작으로, ‘공룡 레인저스’, ‘너의 위시켓을 불러봐!’, ‘슈닝스

광주시립합창단 ‘친구아~노을~자’ 10~1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애니 주제곡·전래동화 음악극 등

타 캐치!’, ‘헬로 카봇’ 등 신나는 주제곡들이 이어진다. 친숙한 멜로디들이 합창단의 맑은 하모니와 울동을 만나 어린이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 ‘꿈꾸는 노래 친구들’에서는 익숙한 동요들이 합창 메들리로 다시 태어난다. ‘아기 염소’, ‘숲속을 걸어요’, ‘기차를 타고’, ‘네 입 클로버’, ‘참 좋은 말’ 등 익숙한 선율들이 무대를 수놓으며 어린이 관객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모래 위의 클래식’ 5월 2~4일 광주예술의전당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피터와 늑대 등

2부에서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새롭게 해석한 음악극이 펼쳐진다. 노래와 연기가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는 어린이뿐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히 듣고 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음악 시간으로 구성돼, 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약 중인 퍼

커션 연주자 고통현이 참여해 무대에 경쾌한 리듬과 생동감을 더한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게 활동 중인 배우 양흥주가 연기 지도를, 전문 무용가 김명주가 안무를 맡아 더욱 역동적이고 풍성한 무대를 완성했다. 음악과 연기, 춤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안겨줄 것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가정의 달인 5월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키즈 콘서트 ‘모래 위의 클래식’을 선보인다. 공연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과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가 연주된다. 광주시향은 어린이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샌드아트와 결합해 보다 친근하고 흥

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속 ‘사탕 요정의 춤’, ‘꽃의 왈츠’ 등 유명한 발레 음악을 감상하며 클래식의 아름다움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여기에 샌드아트와 내레이션이 더해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상상력을 한껏 펼칠 수 있다. 이어서 선보이는 ‘피터와 늑대’는 악기별로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늑대는 오보에, 오리는 클라리넷, 피터는 호른으로 묘사되며, 아이들은 각 악기의 소리를 통해 캐릭터를 떠올릴 수 있다. 이병욱 광주시향 예술감독은 “클래식 음악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음악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창작의 본질...새로움, 새 물결

‘NEW WAVE’ 회원전...9일까지 무등갤러리

‘NEW WAVE’(새로운 물결)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창작을 하고 세상을 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창작은 본질은 다르게 보기이다. 다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일 터이다.

‘NEW WAVE’가 제3회 회원전을 무등갤러리에서 진행 중이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강정애, 김상집, 소영현, 이은정, 정명희, 조유섬, 홍성용, 홍용자 작가 8명이참여했다.

새로움, 새 물결을가치로 내건 만큼 작가들은자신만

의 시각으로 형상화한 개성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수채화, 기록화, 풍경화 등 각각의 작품들은 작가의 내면에서 체화된 대상으로 고유의 미와 의미를 발현한다. 김상집 작가의 ‘광주고등학교 4·19기록화’는 60년 4월, 이승만정부의 독재와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경찰의 모습을 담고 있다. 곧 다가올 4·19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다.

홍용자 작가의 ‘영원한 사랑’은 도라지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도라지꽃은 보라색인데 화폭의 도라지꽃은 연분홍색이다. 보랏빛 꽃이 다소 깊고 무거운 느낌을 환기한다면 연분홍꽃은 설렘과 낭만의 감성을 발한다.

홍 작가는 “단체전을 준비하느라 한동안 여념이



홍용자 작 ‘영원한 사랑1’

없었다”며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잠시 머물러 마음의 여유를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정애의 ‘모란이 피기까지’, 송영현의 ‘해바라기’, 이은정의 ‘BLOSSOM’, 정명희의 ‘빛, 사랑을 담다’, 조유섬의 ‘홍매의 유혹’, 홍성용의 ‘우포 늪 아침소경’이 주는 새로움도 발길을 붙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치와 사유...‘오라, 나의 예술적 영토로’

허진 개인전...29일까지 서울 갤러리 초이

‘영토’는 다분히 철학적이며 인문학적인 용어다. 단순한 땅을, 면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와 사유와 연계된 추상적인 개념이다.

예술에 있어 ‘영토’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작가들은 자신만의 영토를 추구하며 확장하고자 한다. 모든 것이 고도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예술적 영토가 갖는 의미는 더욱더 부각된다.

소치 허련에서 시작해 남부 허건으로 이어지는 전통 화백의 중심에 있는 허진 화가(전남대 미대 교수)가 영토를 모티브로 개인전을 연다. 오는 29일까지 서울 갤러리 초이.

‘오라, 나의 영토로’(Come To My Territory)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기존 작품과 신작을 감상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오라, 나의 영토로’전은 지난달 5일부터 DB금융투자 알파플러스클럽 27층에서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작가는 ‘유목동물’, ‘이종융합동물’ 등 연작을 매개로 인간과 자연, 문명과 야생 등 세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풀어냈다. 문명 속에 내던져진 동물과 인간의 존재 양상, 사물과 인간의 존립의 방식을 세밀하게 또는 실루엣의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각각의 작품 속에 응결된 사유의 미덕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질문하게 한다는 데 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문명의 어느 선까지 흐를 것인지 묻게 된다. 그 질문은 작가 스스로 술하게 반문했을 것으로, 예술세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토대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갤러리 초이 관장은 “그의 작품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유하고 질문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며 “인간 존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예술 창작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평한



‘유목동물+인간-문명 2023-11’

다. 한편 허진 작가는 서울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37회 개인전을 비롯해 수백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우수상, 제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5 GAC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명작시리즈’가 오는 2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 연주를 맡은 알테무지크서울 연주자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명작 ‘오만과 편견’

광주예술의전당, 29일 ‘11시 음악산책’...안인모 해설

“당신이 완벽하게, 눈부실 정도로 완벽하게 행복할 때만 나를 ‘다시 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인 오스틴의 명작 ‘오만과 편견’을 피아니스트가 음악·미술과 함께 읽어준다. 광주예술의전당은 2025 GAC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첫 프로그램으로 오는 29일 오전 11시 전당 소극장에서 ‘명작시리즈1-오만과 편견’을 진행한다.

공연은 해설과 영상, 연주자 어우러진 ‘마티네 콘서트’ 형식으로 펼쳐진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인 안인모씨가 해설자로 나서 관객들의 갑작이 역할을 맡는다. 관객들은 시대를 초월한 명화와 함께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을 따라, ‘교양의 시절’이라 불린 19세기 유럽의 정취를 여행하듯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명작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오만과 편견은 19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사랑과 갈등, 결혼과 계급 문제를 유쾌하게 풍자한 고전이다. 엘리자베스 베넷과 피츠윌리엄 다아시의 로맨스를 중심

으로, 인물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재치 있는 문장과 유머로 당시 사회의 단면을 생생히 포착해낸다.

이번 공연은 각각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텍스트와 그림, 음악을 유기적으로 엮어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한다.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앤드류 부부’ 초상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들여다보며, 문학 속 정서를 시각적으로 확장시킨다. 여기에 헨델 ‘오보에 협주곡 3번’, 존 다울런드 ‘플러라 나의 눈물이여’, 비발디 ‘치아론타’ 등의 고음악이 더해져, 관객을 소설 속 시대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연주는 고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알테 무지크 서울’이 맡아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한다.

가이드 안인모는 “명작 시리즈는 한 권의 고전을 음악과 그림과 함께 음미하며, 인문학적 사유와 예술적 감성을 함께 쌓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청년활동가 모집...17~23일 NCAS 접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남 청년들에게 문화기획 프로젝트의 기회가 열렸다.

전남문화재단은 전남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청년활동가를 모집한다.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2025 청년 문화기획자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지향 시즌3’은 생태위기와 지역 소멸을 주제로 한다. 참여자들은 지역 문제를 색다른 관점에서 탐색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된다. 전남 거주 만 45세 이하 청년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자에게는 개인·그룹별로 300~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월 활동비

160만원(5개월간)이 지급된다.

지원 가능한 주제는 ‘전남 또는 22개 시·군 또는 295개 읍·면·동 또는 해당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생태위기, 지역소멸 등 ESG 관련 주제’, ‘이웃 간 소통단절 해결, 학교폭력 예방, 야생동물 보호, 다문화가정 자녀 차별 예방방안 마련’, ‘귀촌인의 지역 적응 도모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주제’ 등이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남 청년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번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